

# ‘모란 시인’ 영랑 김윤식 보는 동화로 만나보자

### 김옥애 ‘동화로 만나는 영랑...’ 발간 ... 지사적인 면모 시인의 삶 그려



“윤식아. 오늘은 새 옷을 입으렴.”

어머니는 얇은 옷감으로 만든 여름옷을 내밀었다. 며칠 동안 호롱불 아래서 손수 바느질을 한 옷이었다. 바지와 저고리가 윤식의 몸에 꼭 맞았다.

“자, 여기 신도 신어보렴.”

아버지는 고무신을 윤식의 발 앞으로 내밀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타일렀다.

“맨 발로 다니는 가난한 아이들이 많으니 행여 신발자랑은 말아라.”

“예, 어머니.” (본문 중에서)

1930년대 박용철, 정지용 시인들과 시문학과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시문학 발전에 기여했던 영랑 김윤식(1903~1950)의 삶을 다룬 동화가 발간돼 화제다.

광주일보 신춘문예(1975)와 서울신문 신춘문예(1979) 출신 김옥애 동화작가가 펴낸 ‘동화로 만나는 영랑 김윤식 시인’(전남대출판부)은 영랑 김윤식의 시와 삶을 아우르는 동화다.

김 작가가 강진의 선배 문인 영랑의 시 정신과 애국정신을 모티프로 동화를 쓴 것은 남다른 인연과 무관치 않다. 공교롭게도 김 작가의 텃자리가 영랑의 생가와 바로 지적이다. 유년시절부터 들은 시인에 대한 이야기는 김 작가의 창작 인생에 있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김 작가는 평소에도 “영랑을 능가할 수는 없겠지만 늘 부끄럽지 않은 문인이 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고 말한다.



김옥애 작가

사실 영랑에 관한 책은 전거나 시집, 평론 등으로 적잖이 발간되었다. 김 작가는 “기존에 발간된 영랑에 관한 책들과 변별이 되는 동화를 쓰고 싶었다”면서 “이 책은 김윤식의 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심에 포커스를 두었다”고 강조한다.

책은 주전이의 ‘시인 영랑 김윤식 전기’(1997)와 영랑의 셋째 아들 김현철의 ‘아버지 그림고야’(2010)를 바탕으로 쓰여졌다. 일대기 위주로 서사가 전개되는 만큼, 동화 형식을 바탕으로 한 위인전이라 할 수 있다.

알려진 대로 영랑은 ‘시문학’을 창간, 순수 서정시 운동을 전개한 남도 대표 문인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오메 단풍들것네’ 등의 시를 통해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잘 살려냈다. 문학사적 측면에서 영랑은 시의 음악성과 세련된 표현으로 당대의 문학을 이끌었던 순수 서정시의 기수라고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영랑은 삶에 있어서도 역동적인 활동을 펼친 지사적 문인이다. 1919년 휘문의숙 학생 신분으로 기미독립운동에 가담, 고향 강진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또한 우리 한복인 두루마기를 즐겨 입고 창씨개명에도 따르지 않았다. 밤이면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글을 가르치는 등 애국심 고취와 자주 독립을 위해 애썼다.

이번 동화의 특징은 어린이들이 영랑의 삶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 사건마다 삽화를 삽입했다는 점이다. 곡성 출신 수채화가 윤미경 씨의 그림은 ‘읽는 동화’에서 ‘보는 동화’로의 색다른 맛을 선사한다.

강진 시문학박기념관은 “이 동화집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 새싹들에게 영랑의 영롱한 시혼과 애국 지사적 정신을 전승하고자 출판했다”면서 “우리 새싹들에게 감성 함양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옥애 동화작가는 광주일보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한국불교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동화집 ‘그레도넛 보물야’, ‘별이 된 도깨비 누나’ 등을 펴냈다. 현재 강진 대구면 중저 바닷가에 있는 오두막과 광주를 오가며 동화를 쓰고 있다.

한국 시문학박의 대표 시인 김윤식이 태어난 강진군 강진읍 소재 영랑 생가.

/광주일보 자료사진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해피 뉴이어.”

정명훈 서울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지난 31일 10년간 동고동락 해온 서울시향과의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프랑스로 떠났다. 서울시의 회가 여론을 의식해 지난 28일 정 감독과의 재계약 체결안 의결을 올해 1월로 넘기자 “진실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파리행 비행기에 오른 것. 서울시의회는 최근 정 감독의 부인 구씨가 박현정 전 서울시향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재계약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정 감독과의 결별은 서울시향사

다. 여론에 떠밀려 발표한 그녀의 애매모호한 사과도 또 한번 문학팬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지난 2014년 정형민 전 관장이 물러난 이후 1년동안 관장인선을 둘러싼 국립현대미술관의 스캔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1차 공모 결과 ‘적격자 없음’을 발표하자 최종 후보에 오른 최호준 전 경기도미술관장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외국인 관장 선임에 전제로 실시한 2차 공모에서 최종 후보가 된 바르토크 마리 리바사 전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장이 재직 시절 정치적 견역 문제에 관여한 게

## 문화로 행복한 2016년

태의 ‘반전’에서 시작됐다. 1년 전 성추행 등을 이유로 박 전 대표를 고소했던 시향 직원들이 경찰조사 결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게 됐다. 여기에 구씨가 박 전 대표를 음해하는 투서 작성과 배포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난여론이 빚났다.

지난해 세밀을 뜨겁게 달군 서울시향의 ‘진실게임’은 말 그대로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줘야 할 오케스트라가 연일 파열음을 내는 모습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리고 보면 2015년 문화예술계는 온갖 불협화음으로 국민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었다. 작년 여름 문단을 패닉상태로 몰고간 소설가 신경숙의 표절 논란이 그 신호탄이었다. ‘민고 보는’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신 씨의 표절은 충격 그 자체였다. ‘문제가 된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을 여러 차례 대조해본 결과, 표절이라는 댕겨 제기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

알려지면서 미술계의 공분을 샀다. 고흥 출신인 천경자 화백의 뒤늦은 부고 소식과 이어 다시 불거진 ‘미인도’ 위작 논란도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광주시 산하 7개 시립예술단 가운데 지난해 새로 수장을 맡은 시립국극단은 예술감독의 허위이력 등을 둘러싼 일부 단원들과 감독간의 고소·고발사태가 이어져 불협 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지난 연말에는 광주국제영화제가 상임이사의 전횡 의혹 등으로 극심한 내용에 휩싸이면서 어느해보다 우울한 세밀을 보내야했다.

각박한 세상, 문화와 예술은 그 자체로 희망과 위로를 안겨준다. 그 어떤 곳보다 아름답고 ‘문화적’이어야 할 문화계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건 불행한 일이다.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아름다운 화음으로 꿈과 힐링을 주는, 그리하여 문화로 행복한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

<편집국장·문화선임기자>

## 68편의 몽상...광주 출신 김종완 씨 ‘월요허구’ 펴내

68편의 몽상적인 이야기와 몽환적인 그림이 어우러진 단편소설집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광주 출신 김종완 씨가 펴낸 ‘월요허구’(헤르츠나인)는 일상의 굴레에서 건져 올린 비일상의 소재를 모티프로 하고 있다. 여느 소설처럼 화려한 장치가 있지는 않지만 외로움의 정서를 몽상적인 이야기와 결

합해 새로운 느낌을 선사한다.

소설은 일요일의 화려한 사랑이 끝나고, 고장 난 월요일에 맞는 외로움의 정서에 주목한다. 책에 실린 단편들은 완성되지 못한 존재의 결핍과 외로움의 자기 고백에서 나오는 비일상의 편린들이다. 모두 68편의 이야기는 제각기 다른 복선을 숨긴 채 장편의 서사를 향해 나아가는 형식을



을 때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다. 그 말이 대체 뭐라고.”

민다.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뭘 자꾸 쓰는 버릇이 있는데, 이런 지는 6년 정도 되었다. 짝사랑 때문이었다. 내가 좋아한다고 했

저자와 주인공은 닮은 듯 다른 듯 느낌을 준다. 책을 관통하는 이미지는 몽상과 허구, 그리고 외로움이다.

임지영 번역가는 추천사에서 “단편을 모아놓은 소설집이지만 끝까지 읽어보면 장편 소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비밀스럽게 숨어 있는 복선은 해체되고 무산되는 듯하다가 결국 이리저리 복제되고 연결되며 ‘월요허구’를 완성한다”고 말한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빈 소년 합창단 한국에서 단원 오디션

5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오스트리아 빈 소년 합창단이 이달 한국에서 단원 오디션을 연다.

오는 15일부터 전국 순회 내한공연을 하는 빈 소년 합창단은 한국 학생들의 입단 문의가 많아 1년에 두번 있는 공식 오디션 외에 이번 내한 기간 특별 오디션을 실시하기로 했다. 빈 소년 합창단은 1498년 오스트리

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막시밀리안 1세 황제의 칙령으로 조직된 전통 깊은 합창단이다.

오디션은 6일부터 1주일간 이메일 등을 통해 1차로 노래 동영상을 접수한 뒤 2차 오디션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지한다. 9세 이상 남학생만 신청 가능하다. www.clubbalcony.com

/연합뉴스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남권의 중심호텔

#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뤄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그리아호텔 홍보대사 김연자·김성환

평화광장과 영산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인 전망과 내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웨딩홀!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팀만 예약!!

웨딩 및 피로연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들뜬치 등

##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